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1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중정로 2가 33번지 기록고사피문제연구소원 빌딩 3층
 Fir. 301, CFWD building #335, Chungjeongro 2 ga, Seodaemun Gu, Seoul, Korea
 Tel. (82-2) 365-4016, 392-8252 Fax. (82-2) 365-4017
 Internet: <http://witness.peacenet.or.kr> E-mail: mss@peacenet.or.kr

정신여대 조시현 교수님께

문서번호: 제 99-123호

1999. 9. 14

수신:

제목: 2000년 법정 학생법정 발족식에 대한 후원의 건

1. 안녕하세요? 바야흐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 학생법정은 2000년 법정 한국위원회 기획·홍보분과의 학생위원회로 속해 있습니다. 여성인권과 평화의 손쉬운 21세기를 향한 공동의 전망을 갖고,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공통의 지향을 갖습니다. 그러나 2000년 법정과는 달리 학술적 목표를 갖고, 문예적인 역량 또한 한 공간으로 결집해 내어, 내용으로나 형식으로나 알찬 여성문예운동의 형상과 전형을 창조하고자 합니다.

3. 지난 1월에 제안되어 지속적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으며 정대협의 사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8월 25-26일 2일간 '한일학생연대 전쟁과 여성인권 워크숍'을 열어 일본의 대학생들과 함께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의 현재적 의미와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학생법정이란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저희 일부만이 공유하는 학생법정이나 2000년 법정이 아니라 한국의 각 대학들과 가능한 아시아 피해국의 일본의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생법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학생연결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첫 발걸음으로 오는 9월 29일 발족식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일시: 1999년 9월 29일 (수) 오후 6:30

장소: 홍익대학교 의우관 세미나실

원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4. 이에 후원을 요청합니다. 학생으로서 재정을 만드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 도움을 주시고 계시지만 이번에도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발로, 머리로, 입으로, 땀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도와주시리라 믿고 찾아 뵙겠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방법: 5만원 10만원 20만원 50만원/ 일시불, 분납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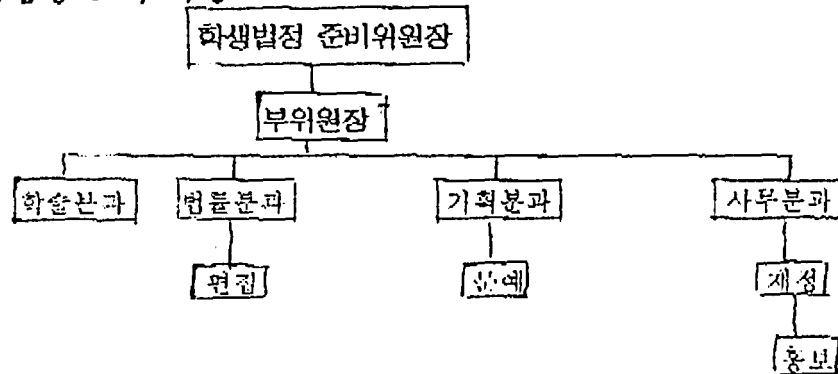
* 계좌번호: 조흥은행 · 예금주: 정대협윤정옥 308-01-163609

5. 이런 귀광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최: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 학생법정

후원: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 한국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별첨1> 학생법정 조직 구성



<역할>

- ★준비위원장, 부위원장: 학생법정과 관련한 계반사항을 점검, 통괄한다.
- ★법률분과: 학생법정을 준비하는 핵심분과로 법정구성과 관련한 내용마련을 한다.
- ★학술분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전지식과 관련 내용을 준비하여 준비위 모임에 함께하는 사람에겐 제공하고 성명서와 같은 문서작성을 편집위원과 함께한다.
- ★기획분과: 2000년 학생법정 성사까지의 전반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위로 문예 분과와 함께 학생법정과 부대행사등을 기획하게 된다.
- ★사무분과: 사업진행을 위한 실무적 활동과 재정마련을 위한 사업을 고민하고 시기별 적절한 홍보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2000년 4월 학생법정까지의 핵심적 사업흐름>

- 1999년 8월 25~26일: 한일(韓日) 청년학생 '전쟁과 여성인권' 워크샵 진행
- 1999년 9월 29일: 학생법정 준비위원회 발족식 (종익대학교 와우관 세미나)
- 1999년 10월 말: 학생법정 성사를 위한 재검마련 사업과 거리선전전
서울 시내 공원등지에서 우리차 판매사업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학생법정을 알리는 선전사업을 진행한다.
(대학로 마포동에 공원-가안-)
- 1999년 12월: 2차 거리선전전과 송년회(1999년 12월 31일 서울 종각)
- 2000년 1월: 학생법정 시나리오 완성을 위한 자문위원과의 만남
- 2000년 2월: " 할머니 증언기록을 통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세미나
- 2000년 3월: 3차 거리선전전
- 2000년 1월부터
모의법정 연습시작, 부대행사를 위한 단위협의 진행, 행사장소 섭외등
- 2000년 4월 중순: 학생법정 리허설
- 2000년 4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완전해결과 일본군 성노예 전범처벌을 위한 한국 학생 모의법정 진행